



무서운 밥상물가
가성비 먹거리엔
무장해제
너



Life

만원에 한가득
다이소
'뷰티 성지' 부상
L2



서울 '기후동행카드'에 군포 동참... 경기 남부지역 첫 확대

서울-군포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 군포지역 7개 역에서 사용 협의 오세훈 "수도권 확대 적극 추진"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군포시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하은호 군포시장과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군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과 생활 연계가 높은 경기 남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처음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강조했다.

군포시의 평균 대중교통 통행량은 일일 약 14만9000건이다. 이 중 서울과 군포 간 대중교통 통행량은 3만2000여건으로, 약 22% 수준이다. 시는 본 협약을 계기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양 도시는 군포지역 지하철 1·4호선 7개 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의에 나선다. 해당 7개 역사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곳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수도권 교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판매가 시작된 23일 서울 중구 시청역에 카드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손진영기자 son@

통기관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군포시를 통과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6개 노선(5530, 5531, 5623, 540, 541, 542)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다"면서 "향후 두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광역버스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1월 23일 판매 개시 이후 현재 26만장이 넘게 팔렸다. 시는 "서비스 시작 직후 서울 지역에서 대중

교통 무제한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인근 공동 생활권인 수도권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12월 김포시에 이어 금번 군포시와의 협약을 성사시키며 단계적으로 기후동행카드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가 열렬한 관심을 받으며 출범한 만큼, 수도권 확대를 적극 추진해 보다 많은 시민이 '신개념 교통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4개월간 스토킹 피해자 136명 보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피해자 이주비, 긴급 거주시설 확대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으로 작년 9월 출범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통해 4개월 여간 136명이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상담 및 사례관리 556건, 심리·치유 지원 38건, 법률·소송지원 32건, 의료지원 13건, 민간경호 등 안전지원 39건을 포함 총 678건의 피해 지원에 나섰다.

시는 경찰과 핫라인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사업단으로 연계, 추가 스토킹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14건의 추가 피해를 막는 성과

를 거뒀다.

시는 "이별 후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가해자와 금융서비스 앱으로 1원씩 총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괴롭힌 가해자를 재신고했다"면서 "또 가해자 출소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배치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늘린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도 종전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걷기 편한 '안전 보행로' 만든다

대형 보도블록 도입, 심미성·안전성↑

고양시는 노후화된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어울림로 등 관내 16개소에 보도정비 공사를 실시했다. 대형 보도블록을 새롭게 도입하고 심미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높였다. 대형 보도블록은 기존 보도블록에 비해 내구성이 높고 평평해서 유아차, 휠체어, 보행기 등을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에도 편리하다.

시는 처음 방문한 사람도 목적지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보행로 곳곳에

방향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편의성이 높아 보도 이용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공사이력판을 설치하여 시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사의 완성도를 높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지난 6월부터는 고양시의 특색을 고려해 보행자 중심의 보도정비 지침(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비 기준은 ▲평탄성과 내구성, 심미성을 갖춘 대형블록의 재질 및 규격 다양화 ▲교통약자의 보행편의 증대를 위한 턱 낮춤 확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패턴 마련 등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올해 10곳 지정

2개 이상 대학 '연합형태' 신청 가능 지난해 탈락한 5곳 본지정 평가 대상 4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 결과 발표

정부가 지방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에 지난해 예비 지정됐지만 본지정에서 탈락한 5곳이 올해 본지정 평가 대상으로 올라간다. 지난해는 대학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통합을 전제로 신청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개 이상 대학이 '연합체' 형태로 신청할 수 있게 완화됐다. 올해 본지정되는 10곳은 7월 중 발표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글로컬대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31일 확정·발표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지방대는 5년간 대학당 총 10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기구를 구축해 대학 간 연합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하나의 대학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통합을 전제로 신청하는 것만 가능했다. 또한 앞으로는 대학의 설립·규모 등 대학 특성이 평가에 반영된다.

지난해 예비지정 대학 가운데 최종 본지정에서 탈락한 5곳은 혁신방향을 유지·보완한 경우 올해 본지정 평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는 올해에만 예비지정대학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예비지정평가 때보다 심층적 평가를 위해 국·공·사립, 전문대학·종합대학 등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평가위원(패널)을 구성해 모든 신청 대학을 대면심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성과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그간 제시된 각종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은 3월 22일까지다. 교육부는 4월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6 | 해질 / 17:55

2월 1일 (木)
음력 : 12월 22일

수도권 날씨
-3 ~ 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6/7
- 동두천 -5/7
- 가평 -5/7
- 파주 -6/5
- 서울 -3/7
- 양평 -3/7
- 인천 -4/4
- 수원 -2/7
- 용인 -2/7
- 평택 -3/6
- 백령도 -4/-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승부차기 도중 떠난 만치니 사우디 감독 "미안하다... 끝난 줄 알았다"
▲돌연 스리백 꺼낸 클린스만, 호주전도 깜짝 전술 나올까 /사진 뉴시스

▲8강 상대 호주보다 이틀 덜 쉬는 클린스만호, 체력 회복 관건
▲KT 박영현·손동현·문상철, 역대 연봉 합류...강백호는 동결



▲"FA 최지만, 3~4개 팀과 협상 중... 다음달 윤곽"
▲한국남자테니스, 데이비스컵 16강 진출 티켓 놓고 캐나다와 격돌 /사진 뉴시스